

## 건축사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 The Social Role and Status of the Architect

이종호 /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 나를 찾는 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로 시작되는 노래가사가 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사람? 건축문화 창달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인?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은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마치 여름 장마철 곳은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흐리기만 하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원망과 한탄을 하고 때론 분노를 표출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불합리한 제도, 과다 배출된 건축사, 생계마저 위협받을 정도의 낮은 설계비, 추락할대로 추락한 건축사의 위상...

그런데 건축사의 지위(위상)를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실제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 무감각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흔한 예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건축사」를 「건축설계사」로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설계사무소」로 잘못 호칭하는 등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건축사의 이미지나 위상이 왜곡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모니터링제도 바람직)우리 건축사들 스스로가 그러한 잘못된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협회 관련단체에서 발간하는 신문, 잡지, 책자에서 조차 오류가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2001년 9월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건축사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호칭을 「○○○소장」에서 「○○○건축사」로 개선키로 하고 홍보 중에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소장」, 「○○○설계사」로 통하기 일쑤다.

심지어는 건축사(犬畜事)라느니 복덕방만도 못하다느니 하면서 자기 비하를 일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하면서 남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를 존중은커녕 조롱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겠는가?

내가 나의 잠재적 가치를 찾고 자존심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철학의 열쇠는 자기 최면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직업을 사랑하자. 설령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고 다독겨려주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켜 보자.

## 협회에 참여하는 일

금년 들어 우리 사회의 으뜸 화두는 단연 「참여」가 아닌가 싶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것이 「참여 정부」이니 그럴 법도 하다.

참여는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해도 우주의 삼리만상이 하나도 나와 무관한 것이 없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렇지만 나라 없는 국민이 얼마나 서러운지,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뺨이 되어 힘을 발휘하는지(공무원의 정부조직, 노동자의 조합 등)를 생각하면 외톨이로 살아 갈 수 없는 것이 세상 현실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38년 동안의 오랜 전통을 간직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든든한 조직이 있다.

물론 그동안 협회에서 회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지 못하며,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등한시 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면이 있어 왔다. 그래서 협회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은 회원대로 분리되어서는 곤란하다. 협회는 임직원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회원일 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회원 모두가 주인 아닌가.

이제 뒤에서 품만 잡고 불평불만 하기보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적극적인 현실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바른말과 행동을 하는 회원이 많아야 협회가 바로 설 수 있고 회원들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럴 때 건축사의 위상도 높아지고 협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건축사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협회에 참여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보자. 현재의 우리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후배들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 보자.

그리고 일부 회원들의 부도덕한 행위 (설계비 덤핑, 불법면허 대여 등)를 추방하기 위하여 나 하나쯤, 내 사무실만 하는 식의 철저한 개인주의를 버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연대의식을 갖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자. 건축계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는 건축사의 위상도 바로 서지 않는다.

협회 또한 침묵하는 다수 의견을 읽는 지혜

를 발휘하여 회원 모두가 함께 하는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원 관리 차원을 넘어 경쟁력 있는 경영 체제로 전환, 협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회원 복지 향상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이기적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나

빠지는 나가 아니라

참여하는 나

내가 살고 협회가 사는 길

## 사회에 봉사하는 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큰 집에 최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생의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심뿐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사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싶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축일만 잘하면 됐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학생이 우선 공부를 잘 해야겠지만 학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생상이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의 입학요건에는 공부뿐 아니라 사회봉사, 헌혈 등 다양한 경험을 고려한다고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관은 변하여 19세기의 자유, 20세기의 평등에서 21세기 들어서는 박애를 추구하고 있다.

생각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다.

또한 삶의 질은 주변 세계에 대한 공헌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해 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할 때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기꺼이 박수를 쳐주었을 때 본인 이 건강해 질 수 있는 이치와 다름없다.

성공과 행복도 대의를 위해 헌신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인생에서 뭐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의식을 새롭게 기다들어 보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자 독특한 재능과 자질을 부여받았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양과 비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전문 직업인이다.

사람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건축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도록 하는데 건축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간의 크기, 형태에서부터 마감 재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 사람에게 이로운지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해보자.

항간에는 건축사가 돈 있는 사람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다. 물론 나 역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생각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건축 세상은 넥타이를 맨 반듯한 사람보다는 잠바차림의 서민들,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편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은 거다. 설계자의 만족을 위한 건축, 입신출세를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엘리트 건축에서 일반 대중건축, 생활건축으로의 변천을 기대해 본다.

또한 건축주만을 위한 건축은 지양되어야 하고 공적 시각으로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

건축물은 건축주만의 것이 아닌 「더불어 삶」을 위한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생태환경을 도외시한 비인간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이제는 삶의 질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건축과 대중과의 교감으로 거리를 좁혀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한 건축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영세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건축사가 나서보자. 민간 차원의 「사랑의 집짓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등 시민사회 운동을 비롯 각종 사회활동에도 기회가 닿으면 참여해 보자. 돈과 명예도 좋지만 나누는 삶이 더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직원이 회사에도 애착을 갖는다하여 외국계 일부기업에서는 1년 중 정해놓고 봉사 현장근무를 하도록 한다.

우리 건축사들도 1년에 하루만이라도 봉사 활동(건축상담, 분쟁조정, 건물안전, 예방, 수해복구 등)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우리 모두가 사는 길

나 자신부터 우선 바로 세우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역량)을 키우자. 나의 노력이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보자.

변화를 두려워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확실히 변화하자. 하지만 변화의 노력은 개인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조직화, 극대화하기 위해 협회를 구심점으로 삼자.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한 번 큰 맘 먹고 의식과 행동을 바꿔보자.

도시계획 과정부터 건축사가 참여하여 딱딱하게 굳어가는 도시를 유연하게 살려보자. 건축허가 자체도 궁극적으로 협회(지역건축사회)에서 담당하고 건축사에 대한 처분도 윤리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보자. 건축사의 손을 떠나 방황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의 손을 거치도록 하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축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자.

평생 배우는 자세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연수기회도 갖자. 그리고 여유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공헌)하자.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길이다. ㉮